

제 XII 부

「の」

제36장에서는 「の」에 대해서 생각 한다.

- ① 「の」는 A, B라고 하는 두 개의 실체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36. 1)
- ② 「の」에 의미는 없다. (36. 2)
- ③ 「の」 명사수식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36. 3)
- ④ 뒤의 B가 생략되어 「Aの」라고 하는 형식이 생긴다. (36. 4)
- ⑤ 「の」가 B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Aの」에서도 B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36. 5)
- ⑥ 「の」만으로 B의 존재를 나타내고, 형식실체 「の」가 생긴다. (36. 6, 7)
- ⑦ 형식실체 「の」가 형식포함실체에로 기능을 확대한다. (36. 8, 9)

제37장에서는 「の」에 관한 제화제(諸話題)를 다룬다.

- 「のだ基・のです基」 (37. 1) / 「ので基・のに基」 (37. 2)
- 「魚のおいしいの」의 구조 (37. 3) / 「カラオケに行くの巻」의 구조 (37. 4)
- 강조구문의 구조 (37. 5) / 「自由の女神」와 「自由な女神」 (37. 6)
- 「この・その・あの・どの」의 구조 (37. 7)

제36장

「の」

36.1 「の」는 「실체연결묘사사(実体つなぎ描写詞)」..... 구조도에서는 화살표

「の」는 4.2 3)에서 진술한 것처럼 「실체연결묘사(実体つなぎ描写)」를 그 기능으로서 갖는 「実体つなぎ描写詞」 (5.3 표5-6참조)이다. 도시에 있어서는, 図36-1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상의 실체와 실체를 연결하는 「화살표」로서 표시된다. (4.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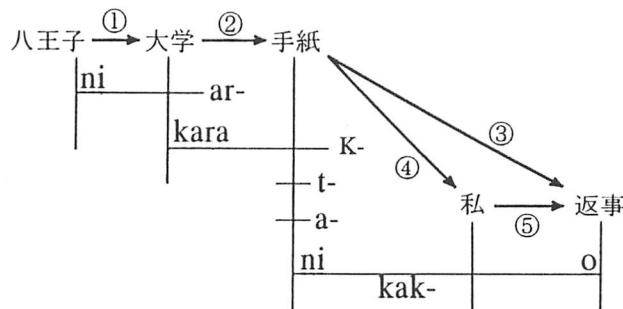


图36-1 私の₁は八王子にある大学から來た手紙に返事を書く

예를 들면, ①②③의 「の」를 사용하면, 아마 요령 좋은 묘사문을 만들 수 있다.

私は八王子の大学の手紙の返事を書く。

① ② ③

(나의₁는 하치오지의 대학의 편지의 답장을 쓴다.)

36.2 「の」의 의미는 어디에서?

「の」의 기능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실체(명사)끼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の」에는 의미는 거의 없기 마련이다. 그런데, 「の」는 종래 소유의 의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국어사전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の」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 | | | |
|----------------------------|---------------|---------------|
| ·私の家(소유자) | ·この大学の学生(소속자) | ·パイの箱(내용물) |
| (나의 집) | (이 대학의 학생) | (파이의 상자) |
| ·主婦の調査(대상) | ·綿のハンカチ(재료) | ·プロ用の道具 (성질) |
| (주부의 조사) | (비단의 손수건) | (프로용의 도구) |
| ·近くの駅(장소) | ·5リットルの牛乳(수량) | ·来年の今日 (때(時)) |
| (역의 앞) | (5리터의 우유) | (내년의 오늘) |
| ·看護婦の三田さん(간호사의 미츠다 씨)(신분) | | |
| ·弟の通う中学校(남동생이 다니는 중학교)(주어) | | |

이것은 왜 이런 것인가? 정말로 「の」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문법에서는 비록 「の」에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の」는, 연결하는 두 개의 명사가 한 개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면, 소유라든가, 소속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구조구성에서 오는 것이다. 구조구성에 돌려보내야 하는 의미의 발현을 「の」의 가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の」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었다.

「の」에 의미는 없다. 「の」만으로는 의미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の」를 다를 때는 구조의 구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성이 명확하게 되면 비로소 「の」가 연결하는 명사간의 관계(의미)를 알게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ドイツの本(독일의 책)」이라는 구(句)가 있는 경우, 이 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에서 이 구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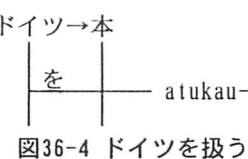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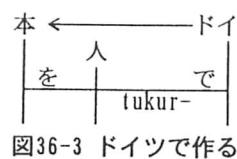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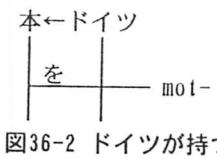


图36-2와 같이 「ドイツが本を持つ(독일이 책을 가지다)」라고 하는 구조에서 생겼다고 한다면, 「소유」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ドイツ<が>の本), 图36-3과 같이 「ドイツで本をつくる(독일에서 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구조에서 생긴 것이라면 「생산지」의 의미가 되고(ドイツ<で>の本), 图36-4와 같이 「本がドイツを扱う(책이 독일을 다룬다)」라고 하는 구조에서 온 것이라면, 「대상」의 의미가 되는 (ドイツ<を>の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명사에 붙어 있는 「の」를 보면 「の」의 앞에 격을 보충하여, 구조 속에서의 그 명사의 위치를 확인하여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하는 어드바이스가 생긴다.

「私の家(나의 집)」이라면 「私(が)の家」(소유), 「この大学の学生(이 대학의 학생)」이라면 「この大学(に)の学生」(소속치), 「主婦の調査(주부의 조사)」라면 「主婦(を)の調査」(대상), 「主婦(が)の調査」(실시자), 「看護婦の三田さん(간호사인 미쓰다 씨)」라면 「看護婦(で)の三田さん」(신분)의 상태이다.

격을 보충하면, 그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2 3) 참조)

당 문법에서는 명사를, 판단구조 속에 있어서 반드시 무언가의 격에 있어 위치를 두는 것으로 다룬다. 문중에 있는 한은 무격의 명사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AのB」와 같은 형식의 묘사에서의 B에 해당하는 명사를 「ノ後名詞」라고 부르기로 한다. 구조에서는 「ノ後実体」이다. A에 해당하는 명사는 「ノ前名詞」이고, 또한 「ノ前実体」이다.

36.3 실체수식묘사 - (r) u와의 결합

「の」에서 구조상의 2 실체를 연결하여 묘사할 때에, 실체수식묘사(4. 2 2) 참조)를 짹지우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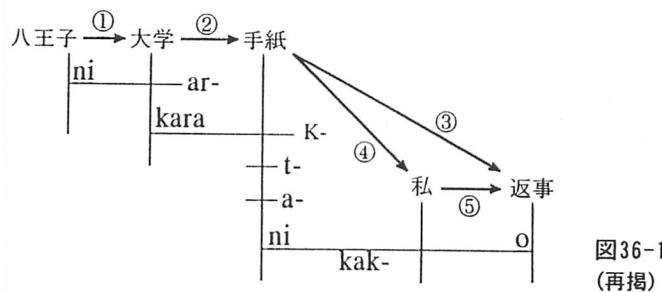
图36-1에 있어서, ⑤의 「の」를 사용하면

私の返事(나의 답장)

라고 하는 형식으로 묘사할 수 있으나, 이 때에, kak-를 노후名詞인 「返事(답장)」에 「실체수식묘사」하면, 이렇게 된다.

私のkak-u返事

(o) 때 「私の」는 마치 「주어」와 같이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

역방향의 ① 大学の ar-u 八王子 (대학이 있는 하치오지)

역방향의 ② 手紙の k-i=t- Ø=a- Øu 大学 (편지가 온 대학)

③ 大学からk-i=t- Ø=a- Øu 手紙の 私のkak-u 返事
(대학에서 온 편지의 내가 적는 답장)

④ 手紙の k-i=t- Ø=a- Øu 私 (편지가 온 나)

역방향의 ④ 私の 大学からk-i=t- Ø=a- Øu 手紙 (나의 대학에서 온 편지)

⑤ 私の kak-u 返事 (내가 적는 답장)

「の」가 연결될 수 있는 관계, 실체수식묘사를 동반할 수 있는 관계의 양자에 대해서 금후 구조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해 보고 싶다.

36.4 노뒤 명사의 생략

鈴木さんの靴はこれですね。ええと、私のは……、あつ、ありました。

스즈키 씨의 구두는 이것이군요. 음, 내 것은…… 앗,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私の(나의 것)」이라고 하는 형식은, 「私の靴(나의 구두)」를 의미하고 있다. 구조도시 하면, 图36-5와 같이 된다. (속성 hak- 는 다른 것이여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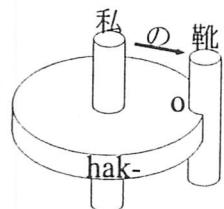


图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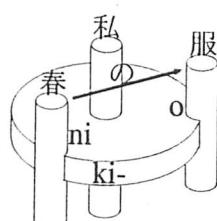


图36-6

「私の」가 「私の靴」를 의미하는 것은, 화자도 청자도 图36-5와 같은 구조를 함께 내장하고 있을 경우로, 그와 같은 경우에 노후名詞(靴)가 생략가능하다.

이 노후名詞가 생략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Ø를 보충하는 것으로 하자.

私の の(は、ここにありました。)

(나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図36-6에서는 「春の の」를 묘사할 수 있다.

(早く)春の の(を準備しなくちゃ)

(빨리 봄의 준비를 해야겠다.)

36.5 ノ뒤 実体를 포함하는「の」

여기에서는 「の」가 두 개의 실체(명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리고, 노후명詞가 무엇인지 화자와 청자에 있어서 자명한 경우에는, 그 노후명詞가 생략묘사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の」묘사는, 노후실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の」는 이미 노뒤 실체의 존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한 보 나아갈 수도 있다. 특히 묘사에 있어서 노후실체가 생략된 경우에는, 「の」는 단순히 화살표일 뿐만 아니라, 노후실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노후실체가 「靴(구두)」인지 「服(옷)」인지 하는 것까지는 특정짓지 않는다. 단순한 형식으로서의 노후실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조도시에 있어서는, 図36-7, 8과 같이 「の」는 화살표와 노후실체의 양쪽을 포함하게 된다. 「연결묘사」의 요소(화살표)와 「실체의 존재를 나타내는」요소의 양쪽을 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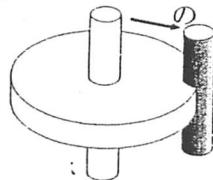


図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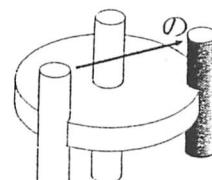


図36-8

私の の (がありません) (図36-7)

나의 것은 없습니다.

春の の (が一着ほしい) (図36-8)

봄옷 한 벌 가지고 싶다.

36.6 화살표를 떼어낸「の」…… 형식실체E 「の」

노후실체를 차지한 「の」는, 「연결묘사」의 요소(화살표)와, 「실체의 존재를 나타내는」요소의 2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후자의 「실체의 존재를 나타내는」요소는 매우 편리한 것이다. 특히 무언가 특정지우는 것 없이 실체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무명의 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무언가 실사(實詞)(명사)가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일본어에는 이와같은 편리한 무명실체는 이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요소 만을 끄집어내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の」에서 「연결묘사」의 화살표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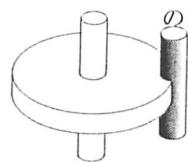


図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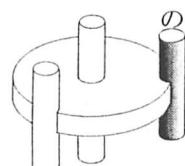


図36-10

이렇게 하여 무명실체「の」가 탄생했다. 보통의 실체가 아니다. 거기에 무언가 어떤 한 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소위 형식만의, 기능만의 실체이다. 임시로 두는 실체이다.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 플라스틱용기, 혹은 카게무샤(직을 속이기 위해서 대장이나 주요인물처럼 가장해 놓은 무사)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무명의 실체를「形式実体E」라고 이름짓기로 하고(6.1참조), 간단하게「ノ形式実体」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에서 한 개의 의문을 상정할 수 있다. 무명실체인데 왜 「の」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인가..... 그 의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자. 「の」는 실체의 「이름」인 것이 아니라, 보통의 실체 대신에 임시로 두어지는 빈 용기로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の」는 기능명인것이다라고.

36.7 ノ形式実体(形式実体E「の」)는 수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ノ形式実体는 기능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무언가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주어나 객어로서 묘사할 수 없다.

* のが来た(것이 왔다.) (図36-11)

* のを食べた(것을 먹었다.) (図3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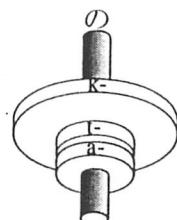


図36-11 文としては描写でき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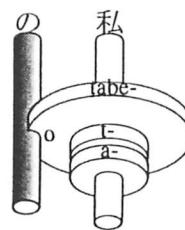


図36-12

「の」가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치되어 있는 본래의 보통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기 위해서는 「の」는 수식에 의해서 특정화되지 않으면 않된다.

(図36-11, 12에서도 「来たの(は～);온것(은)」 「私が食べたの(は～);내가 먹은 것(은)」과 같이 「の」를 수식하는 형태로는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구로서의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식에는, ①동속성에 의한 수식, ②실체연결에 의한 수식, ③형용속성에 의한 수식, ④나기(基)에 의한 수식이 있다.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

①동속성에 의한 수식

私たちが乗る(nor-u)のが來た。 (図36-13)

우리들이 탈 것이 왔다.

妹が作った(tukur-i=t- Ø=a- Øu)のを食べた。 (図36-14)

여동생이 만든 것을 먹었다.

图36-13에서는 「私たちが乗る；우리들이 타다」라고 하는 수식을 받은 「の」가, 무언가 타는 것인 본래의 실체에 대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비로소 실체(주체)로서 다를 수 있게 된다.

图36-14에서도 「の」는 「妹が作った；여동생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수식을 받아서 비로소 실체로서 「食べる；먹다」의 객체가 될 수 있다.

「乗る nor-u」가 수식하는 힘을 가진 것은 밑줄그은 실체수식묘사사(도시에서는 화살표가 된다.) 때문이다. (4.2 2) 참조. 「作った tukur-i=t- Ø=a- Øu」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실체수식묘사사가 제로화되어 있다. (단, 옛날에는 「作りたる tukur-i=t- Ø=a-ru」로 현재(顯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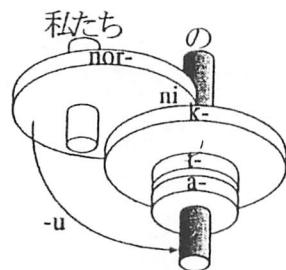


图3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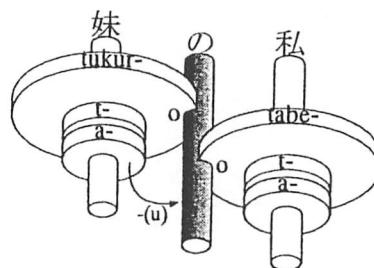


图36-14

②실체연결(実体つなぎ) 「の」에 의한 수식

图36-13, 14에 있어서, 또, 실체연결수식(ノ연결, 36.1 참조)를 시행할 수도 있다.

私たちのものが来た。 (图36-13)

우리들의 것이 왔다.

妹のものを食べた。 (图36-14)

여동생의 것을 먹었다.

이 실체연결수식에 의해, 형식실체E 「の」는, 「私たち ;우리들」혹은 「妹 ;여동생」과 관련하는 무언가의 실체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形式실체에의 실체연결은 다음과 같은 속성에 의해서 실체수식묘사(①③ ④참조)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私たちの 乗るのが来た。 (图36-13)

妹の 作ったのを食べた。 (图36-14)

단, 노연결만으로도 자연스러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うちののがやります。

우리 사람이 하겠습니다.

君ののに入れといて。

자네 것에 넣어두개.

③형용속성에 의한 수식

うるさいのが来た。 (图36-15)

시끄러운 것이 왔다.

大きいのを食べた。 (图36-16)

큰 것을 먹었다.

「うるさいの」에서는 「の」가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大きいの」에서는 「の」가 무언가 다른 것에 비교하여 질량이 우수한 속성을 가진 실체에 대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うるさい urusa. k-i」가 수식하는 힘을 가진 것은 밑줄 그은 실체수식묘사사(도시에서는 화살표) 때문이다. (8. 2참조). 「大きい ooki. k-i」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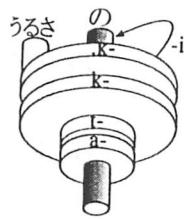


図3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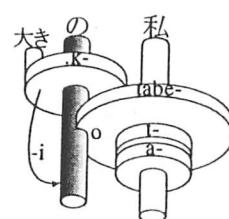


図36-16

④な기(基)에 의한 수식

にぎやかなのが來た。 (図36-17)

小ぶりなのを食べた。 (図3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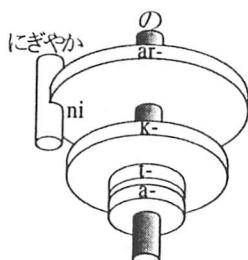


図3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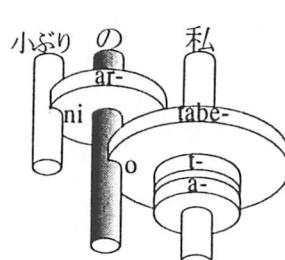


図36-18

「な기」에 대해서는 11. 3에서 다루고 있다.

「にぎやかなの」에서는 「の」가 무언가 시끄러운 만큼 밝은 속성을 가진 실체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小ぶりなの」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에 비교하여 다소 소형인 속성을 가진 실체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6.8 形式包含実体로서의 「の」 ノ包含実体

36. 6. 7에서 본 「の」는, 속성과는 격관계에 있고, 보통의 실체에 대체되는 형식실체이다. 이 편리한 「の」는, 기능을 확대하고, 구조를 포함하여, 구조를 실체(명사)화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포함실체 「の」의 탄생이다. 16세기경인 것 같다. 여기에 탄생한 포함실체 「の」를 「ノ包含実体」라고 부르기로 하자.

図36-19, 20은

彼女が歌を uta-u のを kik-

라고 하는 구조이다. 「ノ包含実体」는 「彼女が歌を uta-u」라고 하는 구조를 내장하고, 그 구조의 수식을 받는다고 하는 형식으로 그 구조를 실체(명사)화하고 있다.

36. 6. 7에서의 비포함실체로서의 취급과 달리, 포함실체로서의 「の」는 속성(uta-)와 격관계에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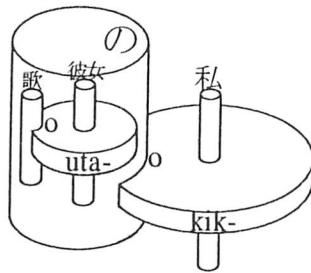


图3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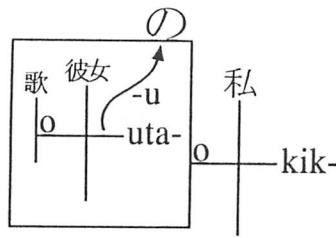


图36-20

포함실체에는 「こと」나 「もの」등 다수의 것이 있지만, ノ包含実体「の」는 그것들의 포함실체와는 많이 다르다. 「こと」나 「もの」등은 본래 실사(명사)이고,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の」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실체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단순히 구조를 실체화하는 것만의 존재이다. 그래서, 이 ノ包含実体를 다른 포함실체와 구별하여 「形式包含実体」라고 부르기로 한다.

특정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구조를 실체화한다. 이것이 형식포함실체「の」의 특징이고, 큰 이점이다.

36.9 제로의 포함실체「θ包」와 형식포함실체「の」

6.6에서 제로의 포함실체「θ包」에 언급했다. 「θ包」는 이름이 없는 포함실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구조를, 무언가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실체(명사)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는, 실체화의 기능만을 가지는 형식포함실체「の」와 많이 닮아 있다.

현재에서는 양자 모두 사용되지만, 격과의 관계에서의 사용가능성을 보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θ包」에는 큰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ノ包含実体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표36-1참조)

또 속담 등, 고전어적인 말투로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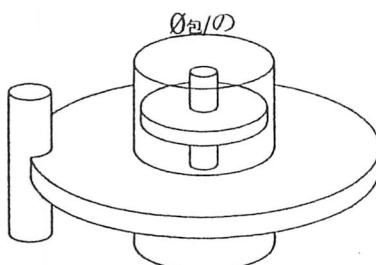


图36-21 主格にある「θ包」「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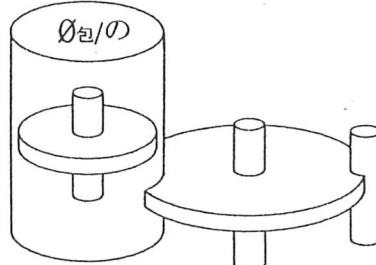


图36-22 客格にある「θ包」「の」

① 「θ包」의 사용제한

「が格」에서의 사용은 충고(～がいい)에 한정된다.

그런ことはしない θ包 が いいよ。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を格・へ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彼が言う θ包 を 忘れた。

그가 말한 것을 잊었다.

* 犬が走る θ包 へ ボールを投げた。

개가 달리는 곳에 볼을 던졌다.

* 彼が帰る θ包 で 玄関先まで見送った。

그가 돌아가는 곳에서 현관앞까지 배웅했다.

「に格」에서의 사용은 「は・も」등의 상대화묘사가 필요. 또, 기구성(基構成)
彼に会う θ包 には 予約がいる。

그와 만나는 데에는 예약이 필요하다.

彼が行く θ包 n=ar-a(ba) 私も行く。

그가 간다면 나도 간다.

「で格」에서의 사용은 기구성의 경우가 대부분.

형식단정기(形式断定基), いです基등의 기를 구성한다.

「と格(인용을 제외함)・より格・まで格」에서의 사용에서는 θ包 내는 ル형뿐
右へ曲がる θ包 と コンビにがある。

오른쪽으로 돌면 편의점이 있다.

山へ行く θ包 より 海へ行きたい。

산에 가는 것보다 바다에 가고 싶다.

彼が来る θ包 まで 待っている。

그가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다.

◎인용의 「と」는 타형도 가능하다. 「もう着いた θ包 と思ひます。; 이미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から格」에서의 사용은 특히 제한이 없다. (본문 끝 참조)

雨が降る θ包 から 傘を持って出る。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다.

표36-1

θ包	「の」(ノ包含実体)	+格
「～がいい」만 가능	○	+主格
×	○	+を格
相对化描写에서 가능·基構成	○	+に格
×	○	+へ格
基構成	○	+で格
인용이외는 ル형만 가능	○	+と格
ル형만 가능	○	+より格
○	×	+から格
ル형만 가능	×	+まで格

② 「の」(ノ包含実体)의 사용제한

「から格·まで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후술(後述) 참조)

* 晴れる の から 傘は必要ない。

(날씨가) 맑으니까 우산은 필요없다.

* 晴雨がやむ の まで ここで待っている。

날이 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 「彼が優勝した の までは知らなかった。」

그가 우승한 것까지는 몰랐다.

이 「まで」는 격사가 아니므로 대상외.

그 외의 다른 격에서는 특히 제한은 없다.

彼女に会う の θ_1 は 初めてだ。

그녀와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稻妻が走る の を 見た。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다.

客が来た の に 気づかなかつた。

손님이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子供たちが大玉を転がして行く の へ 声援を送った。

아이들이 큰 구슬을 굴려서 가는 것에 성원을 보냈다.

花が咲いた の で 見に行った。(37. 2①)

꽃이 피어서 보러갔다.

卒業をする の と 結婚するのが同時だった。

졸업을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동시였다.

ここで釣る の より、あそこで釣る方がよい。

여기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 저기서 낚는 편이 좋다.

이상은 표36-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から・まで」는 위와 같이 격사로서의 「から・まで」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함실체에 관계된 경우는, 어느쪽도 ノ包含实体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が・)に」격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포함실체로서의 「から・まで」로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경우는 포함실체가 「に格」혹은 「 θ_2 格」(및 「が格」)에 놓여진 것으로서 다룬다.

「から」……見る から に 強そうだ。

보기에는 강한 것 같다.

そんなことを言う から に は、覚悟があるのだろう。

그런 것을 말하는 데에는, 각오가 있겠지.

これはおいしい から θ_2 食べなさい。

이것은 맛있는 것니까 먹이라.

「まで」……ここに来る まで が たいへんだった。

여기 오는 것까지가 힘들었다.

会議が始まる まで に 仕上げる。

회의가 시작할 때 까지 일을 마무리짓겠다.

彼がもどる まで θ_2 ここで待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린다.

제37장

「の」諸題

37.1 「のだ基」「のです基」

① 「ノ包含実体」는 물과 같이 무미무색투명.....무의미

음료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맥주, 와인, 청주, 사과쥬스, 오렌지쥬스, 콜라, 우유.....
제각각 개성이 있다. 그러나, 물은 어떠한가. 무미무색 투명의 개성이 없는 것이 개성이 되어 있다.

물은, 알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칼슘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이, 단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쥬스나 콜라의 대용은 될 것이고, 애초 물이 최고다라고 하는 경우조차 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인 음료수인 것이다.

포함실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とき(때)」「まえ(전)」「あと(뒤)」「こと(것)」「もの(것)」「わけ(것)」「はず(마련)」「ため(때문)」..... 각각에 의미가 있다. 이것들의 포함실체의 안에 있고, 「の」즉 「ノ包含実体」는, 형식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ノ包含実体」는 가장 기본적인 포함실체이고, 음료수에 있어서의 물과 같은 위치에 있다.

② 「ノ包含実体」의 의미는, 다른 구조와의 관계에서 생긴다.

「ノ包含実体」는 때(時)의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공간의 관계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를, 그러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없이 실체화하는 것으로 좋다면, 의미가 없는 만큼 범용성(汎用性이) 높고,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ノ包含実体」의 의미는, 「ノ包含実体」가 다른 구조에 편입되고나서, 다른 구조와의 관계속에서 형성된다.

③ 구조의 포함실체화는 다른 구조와의 관계맺음을 지향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러한 구조가 있다고 하자.

あしたは学校へ行く (내일은 학교에 간다.) (図37-1)

이 구조는 이대로는 이것으로 완결되어 버리지만,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내일은 학교에 가니?) (図37-2)

이와 같이 「ノ包含実体」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구조는 다른 구조와 관계지워지는 권리·가능성을 얻은 것이 된다.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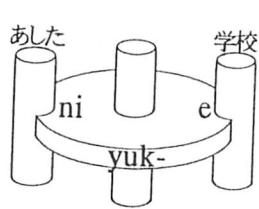


图37-1 あしたは学校へ行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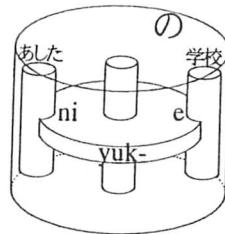


图37-2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 ④ 「ノ包含実体」가 다른 구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지게 되는 의미
사실, 이것을 다른 구조에 편입시키면, 큰 구조의 일부가 된다. (图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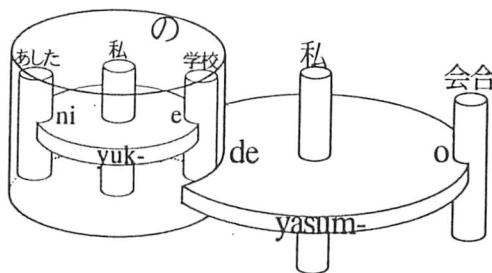


图37-3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で会合を休む

ノ包含実体가 가지는 의미는, 편입시키는 곳과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생긴다. 이 예에서는 「이유」의 의미가 생기고 있다. (37.2 「ので基」참조)

마찬가지로, 편입되는 곳의 구조와의 관계의 모습에 의해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단, 이하의 ()안의 구조의 형성은 화자의 심층에서 생긴 것으로, 화자가 이 만큼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단지, ノ包含実体가 무언가의 다른 구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생기는 의미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라기 보다는 화자의 주체적인 인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청자가 그 인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독백 등, 청자가 그 인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워진다.)

「 이유」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で、海へ行けない)

내일은 학교에 가기 때문 (에, 바다에 못 간다.)

「원인」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で、母が喜んでいる)

내일은 학교에 가기 때문 (에, 엄마가 기뻐하고 있다.)

「결과」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思案のうえの結果となった)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 (이 궁리한 끝의 결과가 되었다.)

「예정」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予定になっている)

내일은 학교를 가는 것 (이 예정으로 되어 있다.)

「희망」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希望だ)

내일은 학교를 가는 것 (이 희망이다.)

「결의」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私の決意だ)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 (이 나의 결의이다.)

「주장」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当然だ)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자랑」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で、自分をほめてやりたい)

내일은 학교에 간다(그리므로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충고」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よい)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

「명령」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を命じる)

내일은 학교에 갈 것(을 명한다.)

「사실」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は事実だ)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은 사실이다.)

「설정」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ほんとうのところだ)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이 정말이다.)

의미관계는 이것으로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쨌든 이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는 이대로의 형태로(특히 여성이나 연소자에 의해서) 발화되는 경우도 있다. 억양에 의해
의문문으로서 발화되는 경우도 있다.

⑤ 「のだ基」「のです基」

문장표현에서의 경우나 보통의 발화에서는 이 ノ包含実体를 포함하는 구조(图37-3)가 형식 단정기(11.4)속에 넣어져서, 「だ・です」를 동반하고, 통상의 문장의 체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だ・です」등의 구조에 대해서는 11.1참조)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だ/です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이다/입니다

그럼은 图37-4와 같은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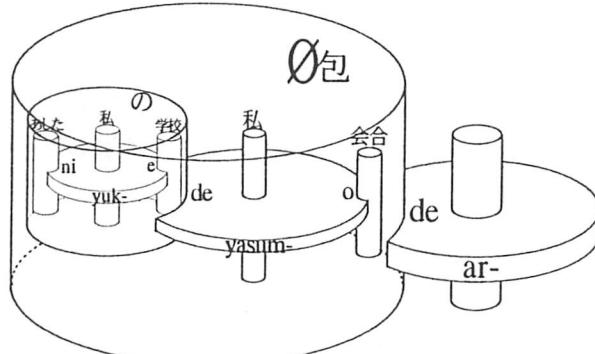


图37-4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だ／のです

여기에 나타나는 구조를 소위 「のだ・のです」의 구조로 보면, 여기에서, 「のだ基」「の
です基」를 추출할 수 있고, 그것은 图37-5에 나타난 것 같은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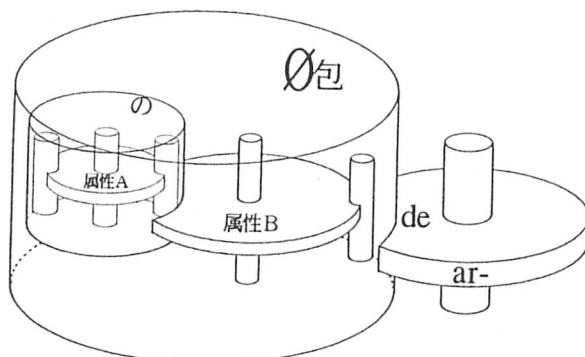


图37-5 「のだ基」「のです基」の例

이 기에서의 묘사의 공식은

속성A の だ／です

가 된다.

ノ包含実体가 관계를 가지는 속성B는 묘사되지 않는다. 속성B가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속성B와의 관계로부터 ノ包含実体에 생기는 의미는, 상황 등으로부터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함축의 깊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서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인상이 되거나 한다.

이것은 예를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이유」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で、海へ行けない) だ／です

내일은 학교에 간다 (그래서, 바다에 못간다.)

「 예정」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予定になっている) だ／です

내일은 학교를 가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

「 결의」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私の決意だ) だ／です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이 나의 결의이다.)

「 충고」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よい) だ／です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

「 설정」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がほんとうのところ) だ／です

내일은 학교에 가는 것(이 정말이다.)

명시되지 않는 ()안의 구조가 함축, 정서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인상이 된다.

또한, ()안이 명시되어(하선부), 보다 큰 구조가 되는 것도 있다.

あしたは学校へ行くの で、海へ行けないの (が本当のところ)です

내일은 학교에 가기 때문에, 바다에 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입니다.

이 경우는, 「이유」의 의미가 명시되는 것이 되어, 「설정」의 의미가 함축, 정서의 인상이 된다.

또,

村田さんは日光だ。

무라타 씨는 낫코다.

와 같은 형식판단기의 구조 그 자체가 「のだ基」에 들어가서,

村田さんは日光なのだ。

무라타 씨는 낫코인 것이다.

와 같은 형식이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의 구조도시에 대해서는 図11-27(제11장) 참조.

⑥ 「おいしいです」와 「おいしいのです」

예를 들면

おいしいです。

맛 있습니다.

는 하나의 구조이고, 이것으로 완결되어 있다. 맛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이것이 「のです基」에 들어가서,

おいしいのです。

맛 있습니다.

가 되면, 단순히 맛에 대해서 진술하는 형식이 아니게 된다.

「おいしいです」가 노포함실체속에 들어가서, 속성B와의 관계에 놓여지는 것에 의해, 구조 B와의 사이에 무언가의 의미관계가 생긴다. 그러나, 속성 B가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관계는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함축의 의미나 정서를 느끼게 하든지 하는 것이 된다.

「おいしいのです。」는, 다른 구조와의 관계에 있어서(37. 1③④) 맛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은 것에 대한 이유의 설명

으로서 맛에의 언급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그 음식물을 권하는 것의 이유의 설명

가격이 비싼 것의 이유의 설명

A씨가 만든 요리가 맛있다는 것의 주장

자신이 만든 요리가 맛있다는 것의 자만 등등

으로서의 맛에 대한 언급이기도 한다.

37. 2 「ので基」「のに基」

① 「ので基」

형식포함실체 「の」는, 다른 포함실체 「もの」나 「こと」등과는 달리,

특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없이 구조를 실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36. 8), 어떤 구조를 그대로 실체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の」가 사용된다.

雨が hur-

비가 내리다

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면, 「の」에 의해 이대로 실체(명사)화 할 수 있다.

雨が hur-u の

여기에 생긴 실체를 「で格」중에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격에 두고, 그 구조(雨が hur-)가 「원인·이유」를 나타내고자 하는 형식이 「ので基」(図37-6)이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의 구조는 図37-7과 같은 형태가 된다.

雨が hur-u ので 家にいる。

비가 내리므로, 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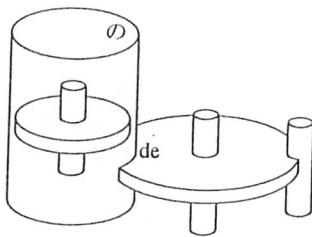


图37-6 「ので基」の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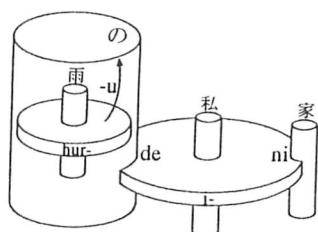


图37-7 雨が降るので家にいる

의미적으로 「ので基」에 닮은 것으로, 포함실체 「から」, 「ため」가 있다.

雨が hur-u から 家にいる

비가 내려서 집에 있다

雨が hur-u ため(に) 家にいる

비가 내려서 집에 있다

이 양자는 모두 원래실체(元来実体)(명사)이고, 그 실체 자체가 원인·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점에서 「ので基」와는 사정을 달리 하고 있다.

「ので基」에서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で格」이라고 하는 위치이고, 노포함실체 자체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노포함실체는, 구조를 관계속에 두고자 하고 있는 것 뿐이다.

② 「のに基」

노포함실체를 「に格」중에 「상황」을 나타내는 격에 두고, 그 구조가 「보통 예기하는 사상(事象)과 반대의 사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하는 형식이 「のに基」(图37-8)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의 구조는 图37-9와 같은 형태가 된다.

雨が hur-u の に 山へ行く

비가 내리는데 산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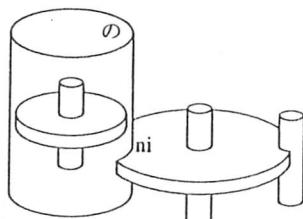


图37-8 「のに基」の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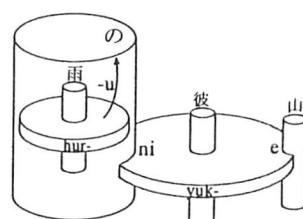


图37-9 雨が降るのに山へ行く

37.3 「魚のおいしいの」의 구조

「魚のおいしいの」라고 하는 타입의 표현이 있다. 이것은 「魚」라고 하는 명사를 먼저 제시하여, 그 뒤에 수식을 첨가한 다음 주이나 객어로서 취급하려고 하는 표현이다. (「魚の/おいしいの/がある(생선/맛있는 것/이 있다)」). 이와같은 표현의 구조는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일까?

36.2에 있어서, 명사의 뒤에 「の」가 있다면, 「の」의 앞에 격을 보충하면 좋다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한다.

魚の_いいしの

생선이 맛있는

라고 하는 형식의 「魚」는 정말로 이러한 케이스이다. 이런 형식으로 묘사된 원래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명사(魚)의 뒤, 「の」의 앞에 어떠한 격이 가능한가를 아는 데에 있다.

그 위치에 (θ_1 격과 θ_2 격을 제외) 모든 격을 후보로서 끄집어 내어 병열해 보자.

魚(が・を・に・へ・で・と・から・より・まで(가, 을, 예, 예로, 로, 와, 이니까, 의해, 까지))のおいしいの

하면, 의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が」와 「で」인 것을 알 수 있다.

① 魚がのおいしいの

생선이 맛있는

② 魚でおいしいの

생선으로 맛있는

한편, 「おいしいの」의 구조는, 36.7③에서, 図37-10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の」는 형식실체이다.

「魚のおいしいの」의 「魚の」의 「の」는, 「魚」에서 형식실체 「の」에 향하는 화살표(연결묘사), 즉 묘사사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조구성에 필수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① ②에서 이 「の」를 지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魚がおいしいの (を買う)

생선이 맛있는 것을 산다

②' 魚でおいしいの (を買う)

생선으로 맛있는 것을 산다

①' 은 부자연스럽다. ②' 는 가능하다. 그래서, ②' 의 「魚でおいしいの」의 구조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魚でおいしいの」의 「の」가 「魚」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음으로, 이 「で」격은 「の」와 「魚」가 동일의 것임을 나타내는 격(同定格)이라고 여겨진다. 즉, 「魚であるの(생선 인 것)」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기 마련이다. 이 구조를 도시하면, 図37-11이 된다. 이 구조에서는 「魚(で)のの」이라고 하는 묘사가 가능하다.

이 구조와 이미 생겨 있던 図37-10의 구조를 조합하면, 図37-12와 같은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즉

魚のおいしいの

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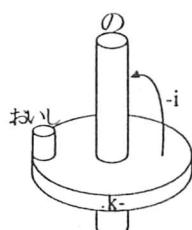


図37-10 おいしい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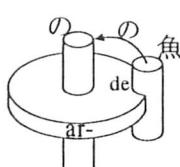


図37-11 魚の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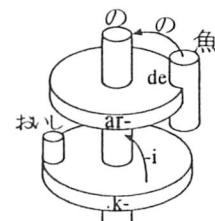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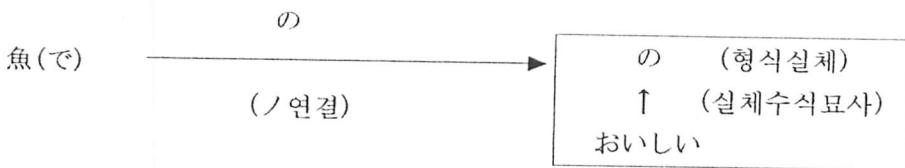


図37-12 魚のおいしいの

이 구조(図37-12)의 수식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魚のおいしいの」라고 하는 구조는, 동시에
魚でおいしいの
魚であるおいしい의
라고 묘사할 수도 있다. (의미는 비슷해도, 「おいしい魚」, 「魚がおいしい」의 구조와는
다르다.)

이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의 예를 몇 개 들어보자.

試験問題のむずかしいの (형용속성사용)

시험문제가 어려운 것

学生の福岡から来たの (동속성사용)

학생이 후쿠오카에서 온 것

ジャズのにぎやかなの (な基 사용)

재즈로 변화한

37.4 「カラオケに行くの巻」의 구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이 있다.

芸能人と結婚するの望みあり。

연예인과 결혼하는 바람이 있다.

이 문장에서 문법상 의문이 되는 것은 「結婚する(결혼하다)」는 그대로 「望み(바람)」를 수식할 수 있는데(「結婚する望み(결혼하는 바람)」), 왜 「の」가 개재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같은 표현으로서 「いにしえを懷かしむの情(옛날을 그리워하는 정)」 「あざむかざるの記(거짓없는 기록)」 「その部屋に入るの瞬間(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カラオケに行くの巻(가라오케에 가는 권)」 등, 여러 가지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の」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어떻게 구조도시하면 좋은 것일까?

『일본문법대사전』의 「の」 항의 「보충설명」에 의하면,

「あざむかざるの記」와 같이, 용언의 연체형을 받아들이는 용법은, 한문의 훈독에서 생긴 것이다. (「あざむかざるの記」のように、用言の連体形をうける用法は、漢文の訓読から生じたものである。)

라고 한다. 그 설명에 따르면,

終食之間

이라고 하는 한문은 「之」를 읽지 않고, 「ショクヲ・ヲフル・ヒマタ」여야 할 터인데

무로마치 중기 이후, 주자신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문의 자면을 떠나서도 치자가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배려에서

(室町中期以後、朱子新注学を奉ずる人々により、漢文の字面を離れても置字のあることがわかるようにとの配慮から)

종래 읽을 수 없는 치자(置字)였던 조사「之(ノ)」가 읽어지게 되어, 그래서,

ショクヲ・ヲフル・ノ・ヒマタ

와 같이, 이 「の」의 용법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일본어로서는 변칙적인 「の」는, 구조도시에서는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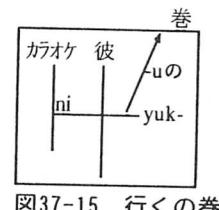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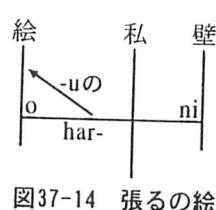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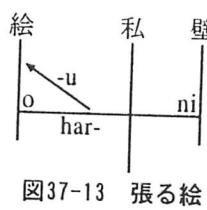
① 우선 예를들면,

壁に張るの絵

벽에 붙이는 그림

과 같이 명사(그림)이 속성(張る)와 격관계(を格)에 있는 (絵を張る)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본래는 図37-13과 같이 실체수식묘사사는 「-(r)u」의 형식이면 되지만, 여분의 「の」를 동반하게 되었기 때문에, 図37-14와 같이 「-(r)uの」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한편, 예를들면,

カラオケに行くの巻

과 같이 명사(��)이 속성(行く)와 격관계에 없는(��?行く) 경우는 포함실체구조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본래 「-(r)u」만으로 되는 실체수식묘사가 여분의 「の」를 동반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図37-15와 같이 「-(r)uの」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속성(동사등)을 「-(r)uの」라고 하는 형태로 묘사하면, 그것으로 이미 특수한 실체(명사)인 ノ형식실체(36.7①)나, ノ포함실체(36.8)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것으로 다른 시체를 수식하고자 하면 부자연스러워진다.

* 私が読むの 本 * おもしろいの 映画 静かなの 部屋

내가 읽는 것 책 재미있는 것 영화 조용한 것 방

그러나, 물론, 이것을 ノ실체로서 다루는 한은 문제가 없다.

私が読むの が ない。 おもしろいの から 見る 静かなの を 聞く

내가 읽은 것이 좋다. 재미있는 것이므로 본다. 조용한 것을 듣는다.

①② 어느 쪽도 「-(r)uの」를 실체수식묘사로서 사용하는 것은 일본어로서는 변칙적인 것 이므로 한문조로 하는 등 특수한 표현효과를 노릴 경우에만 행해진다.

이상과 같이 구조도시에 있어서는 실체수식묘사의 화살표에 「-(r)uの」를 첨가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7.5 강조구문의 구조

강조구문이라고 불리는 문장의 형식이 있다. 이 구문에는 A, B2종류를 상정할 수 있다.

① 강조구문 A.....실체의 특정

예를 들면,

彼がUFOを見た。 (図37-16)

그가 유에프오를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 경우, 그의 문장 중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실사(명사)를 골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 것이 강조구문이다.

「彼」 UFOを見た の は 彼だ。 (図37-17)

「그」 유에프오를 본 것 은 그다.

「UFO」 彼が見た の は UFOだ。 (図37-18)

「UFO」 그가 본 것은 UFO다.

구조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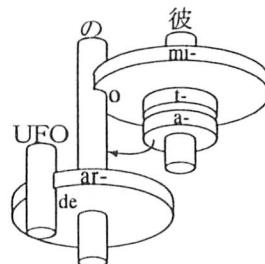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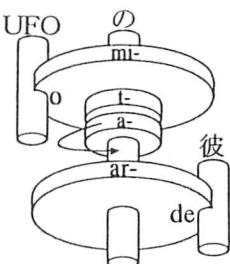


図37-17

図37-18

図37-16과 같은 기본이 되는 구조속에 강조해야 할 실체를 노형식실체에 바꾸어두고, 그 노형식실체를 속성ar-의 주체로 하여, 강조해야 할 실체를 ar-의 de격(동정격)에 둔다. 이러한 형체로 강조구문A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구조를 강조구조 A라고 한다.

또, 의문문의 경우는, 강조되는 실사가 처음에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彼? UFOを見たの。 / UFO? 彼が見たの

그? UFO를 본 게. / UFO? 그가 본 것이

②강조구문B.....격붙는 실체의 특징

예를 들면,

彼がソウルから帰った。 (図37-19)

그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라고 하는 문장의 「ソウル(서울)」을 강조해야 할 실체로서, 강조구문A로서의 취급을 했다고 하면,

彼が帰った の は ソウルだ。

그가 돌아온 것은 서울이다.

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彼がソウルへ帰った。

그가 서울에 돌아왔다.

의 강조구문A로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의(二儀), 애매함이 생기고 있다.

이 이의성을 피하기 위해, 강조구문 B가 사용된다. 강조구문B는 강조구조B에서 묘사되는 것으로 강조구조B라고 하는 것은 図37-20과 같이 동일의 구조(図37-19)에서 「ノ포함실체」와 「θ包」의 두가지 포함실체를 만들어, 노포함실체를 속성ar-의 주체로 하고, θ包를 「で격(동정격)」에 두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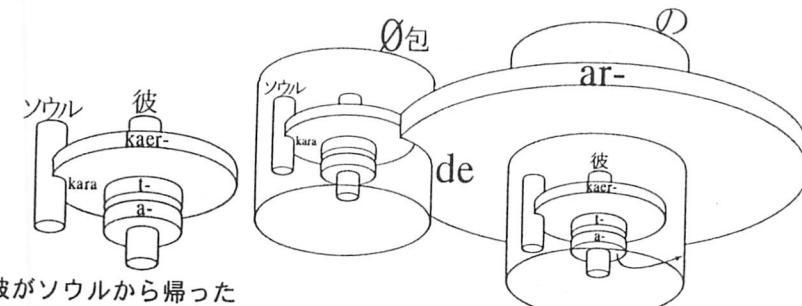


図37-19

図37-20 彼が帰ったのはソウルからだ

각각의 포함실체 안의 「다른부분」을 묘사하는 것에 의해 강조구문을 만든다. 그래서,
『그가 돌아온 것은 서울에서』이다.

라고 하는 문장묘사가 가능하다. 이 묘사에서는 실사(명사)에 격사를 첨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에서 본 이의성을 회피할 수 있다.

강조구문A와의 상이점을 다시 나타내 보자면, 강조구문A에서

『서울에서 돌아온 것은 그다.』

라고 되는 것이, 강조구문B에서는

『그가 돌아온 것은 그다.』

가 된다. 이와 같이 강조구문 B에서는 실사에 격사를 첨가하는 형태가 가능하게 된다.

또, 의문문에서는 강조되는(격사가 붙는) 실사가 처음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 그가 돌아온 것은』

『서울에서? 그가 돌아온 것은』

이상의 강조구조A와 강조구조B의 상이점을 표로 나타내면, 표37-1과 같이 된다.

표37-1

	강조구조A	강조구조B
의	ノ형식실체	ノ포함실체
강조부	실체	실체+격

37.6 「自由の女神(자유의 여신)」과 「自由な女神(자유스런 여신)」

「自由の女神(자유의 여신)」과 「自由な女神(자유스런 여신)」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구조와 묘사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자.

「自由の女神(자유의 여신)」은 「自由」와 「女神」이 「の」로 묶여져 있는 것이므로 양자가 동일구조상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들면, 「女神θ₁ 人間に自由を与える(여신θ₁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한다)」(图37-21), 「女神θ₁ 自由を守る(여신θ₁ 자유를 지킨다)」(图37-22), 「女神θ₁ 自由を好む(여신θ₁ 자유를 좋아하다)」(图37-23), 「自由θ₁ 女神を愛する(자유θ₁ 여신을 사랑하다)」(图37-24)등의 어느 구조에서도 「自由の女神」을 묘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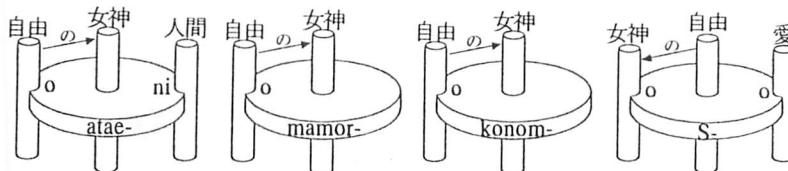


图37-21

图37-22

图37-23

图37-24

심한 예로는 「女神 \emptyset_1 自由がない (여신 \emptyset_1 자유가 없다)」(图37-25)에서 조차 「自由の女神 (自由のない女神) (자유의 여신(자유가 없는여신))」을 묘사할 수 있다. 당연히 「女神 \emptyset_1 自由がある (여신 \emptyset_1 자유가 있다)」(图37-26)에서도 「自由の女神 (自由のある女神)」를 묘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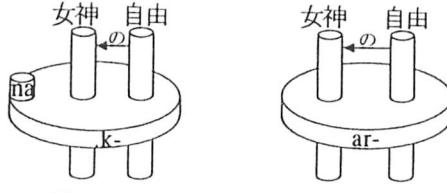


图37-25

图37-26

고유명사로서의 「自由の女神」은, 미국의 리버티섬에 100년 이상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여신상의 경우는 아마도 「女神 \emptyset_1 自由を与える (여신 \emptyset_1 자유를 부여한다)」라든가, 「女神 \emptyset_1 自由を守る (여신 \emptyset_1 자유를 지킨다)」라든가 하는 구조에서 그 명칭을 따온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女神」이 「自由」와 무언가의 형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の」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배후에 어떠한 구조가 있는가는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다. (36. 1, 2). 따라서, 의미도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한편, 「自由な女神 (자유스런 여신)」은 「女神」이 「自由にある (자유스럽다)」라고하는 구조(图37-27)에서만 묘사가능하며, 의미는 하나이다. (11. 3참조) 물론, 이 구조에서도 「自由の女神」을 묘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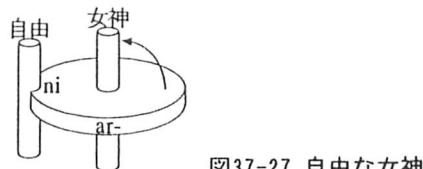


图37-27 自由な女神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된다.

「自由な女神 (자유스런 여신)」은 「自由の女神 (자유의 여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自由の女神 (자유의 여신)」은 「自由な女神 (자유스런 여신)」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다. 한정짓기는커녕, 의미적으로 거의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自由の人 (자유인 사람)」이 되면, 「自由な人 (자유스런 사람)」과 매우 의미가 가깝다.) 「自由の女神」은 여러 가지 구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静かな海 (조용한 바다)」와 「静かの海 (조용한 바다)」의 대조가 있다. 「静かな海」(图37-28)은 「静かにある」라고 하는 바다의 상태를 전하고 있으나, 「静かの海」(图37-29)에서는 「静か」와 「海」가 무언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고, 꼭 바다가 조용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

면, 무엇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말에 접하는 사람이 스스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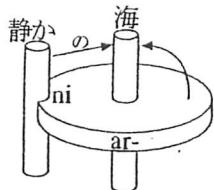


图37-28 静かな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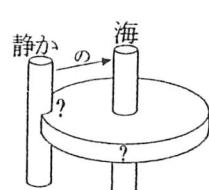


图37-29 静かの海

37.7 「この・その・あの・どの(의, 그, 저, 어느)」의 구조

「この」류의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この」는 「こ」와 「の」로 구성되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これの(이것의)」의 생략형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본래부터 「この」의 형태였던 것 같다. 『講座国語史4 文法史』(p163)에 이렇게 나와 있다.

記紀歌謡에서는 전부 「コノ」이다. 필시 「コレノ」는 「コノ」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이고(략)..... (記紀歌謡では總て「コノ」である。恐らく「コレノ」は「コノ」に対して新しい形であって.....(略).....)

그리면, 「こ」는 무엇인가 하면, 『岩波古語辞典』에 의하면, 「これ・ここ(이것, 여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대명사이다. 「の」는 실체연결사(4.2 3)이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この花(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图37-30과 같은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단, 현대어에서는 이 구조를 이대로 「こにある花(여기 있는 꽃)」이라고 표시하는 일은 없다. 「この」는 기(基)라고 생각된다.

「その(그)」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구조도시는 「この」의 「こ」를 「そ」로 대치하기만 하면 된다.

「あの(저)」는 약간 사정이 달라서, 「この・その」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かの(저)」라고 하는 옛날 형태이다. 그리므로, 구조도시에 있어서는 「この」의 「こ」로 대치해야 할 것은 「か」이다. 그러나, 이미 헤이안 시대에 「かの(저)」에서 k음이 탈락하여 「あの(저)」로 변화한 것도 있어, 일단 이것에 입각하여, 「か」 대신에 「あ」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どの」의 「ど」도, 원래 「いづく」이지만, 이것에 입각하여, 동등한 취급을 하기로 한다. 단 「どの」는 의문사이므로, 형식실체A, 즉 속성반의 구명이 된다. (6.2) (图3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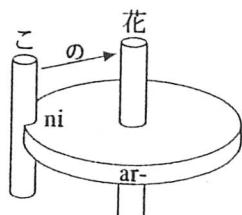


图37-30 この(その・あ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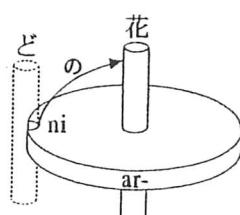


图37-31 どの花

예를 들면 「この花をください。(이 꽃을 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은 図37-32의 구조가 된다.

◎이 문장의 「ください (주세요.)」의 부분은『助動詞II(日本文法構造)』p185에 의하면, 「『くだされ』의 음전(音転)이라고 보는 것 외, 『くださいませ』의 생략(下略)으로 보는 설도 있다」라고 하므로, 여기에서는 보다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후자를 들어,

kudasar-i=mas-e (くださいませ, くださいませ)

주십시오

의 「ませ」의 생략(및 r음의 탈락)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kudasar-의 내부구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39. 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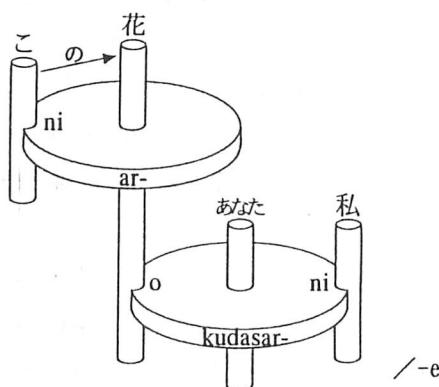


図37-32 この花をくださいませ

(조동사 「mas-」는 「kudasar-」의 밑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덧붙여서, 「こんな」의 구조를 나타내 두자. 「こんな」는 「これなる」의 변화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図37-33과 같이 된다. (「そんな・あんな・どんな(그러한, 저러한, 어찌한)」도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음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kore-ni=ar-u	(これにある)
↓ kore-n =ar-u	(これなる) i音脱落
↓ kore-n =a -Ø	(これな) ru拍脱落
kon-n =a -Ø	(こんな) r-V-n変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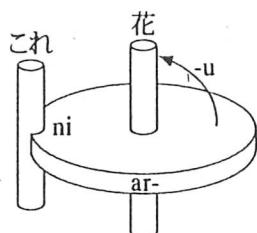


図37-33 こんな花

(만약 「こんな (이런)」가 「このような (이러한)」의 변화형이라고 하면, 「このように (이렇게)」라는 의미로 「こんに(이렇게)」라고 하는 형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